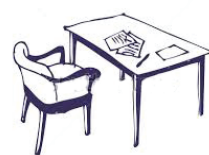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쿠웨이트 파견 근무하는 코리안캐네디안 군목 허 광 소령

"캘거리 좋은 나무교회 교우들이 보고싶다"



캐나다 다른 지역에는 한국계 캐네디안 군목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캘거리에는 금년 1월에 소령으로 진급한 허 광 군목이 동남아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통 미군들이나 한국군에서 드물게 보는 군목들의 계급은 대위이다.

Chaplain Kwong John Huh는 1971년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떠나 토론토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한다.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마친 후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담임목사 김형석)에서 영어권 한인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2006년 10월 한인 2세들과 아시아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2006년 10월 Calgary Good Tree Church를 창설하여 옮겨 갔다.

캘거리 Pleasant Heights 지역에 있는 캐네디안 침례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리더로 허 광 담임목사, 제타 리 부목사 그리고 사무원 앤지 램이 있다. 필자도 한 동안 방문이 뜸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



있는지도 모른다.

2014년 부터 캐나다군 병력이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에서 IMPACT라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캐네디안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중동지역의 안전 확립과 캐나다 군인들의 종교에 관계없이 영혼의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도 하며 파견지에서 캐나다 병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충고를 맡아서 하고 있다.

여름이 지나면 허 준 소령은 중동 파견 근무를 마치고 캘거리로 돌아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부인과 네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던 좋은 나무교회 청년들도 다시 만나게 된다.

허 광 목사와 필자는 몇 해 전 캐나다 군사 박물관에 견학하러 오는 수백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전쟁, 소위 625 동란에 관하여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단에 선 적이 있다.

첫 강사로 마이크를 잡은 그 당시 허 대위는 뒤늦게 캐나다군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어려워 그대로 쓰러져 죽는 줄로 착각했다면서 군대를 갈려면 되도록 더 젊은 나이에 가라고 권했다.

군사훈련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야기 듣던 학생들은 때로는 폭소를 터뜨리다가도 굳은 표정으로 경청하기도 했다.

허목사는 이북여행을 다

녀 온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털어 놓았다. 평양 시내 이 외는 너무나 못 살고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공산 독재자들로 부터 빨리 불쌍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순서에 따라 필자가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격한 낙오병으로 인민군에게 생포된 두 UN군 병사 목격담이었다. 자신들을 생포하여 끌고가는 인민군이 침을 발라 말아서 피

우던 담배 궐초를 받아, 미군 병사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며 피우던 장면을 묘사하자 남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여학생들은 측은하다 못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필자가 "625 때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 enemy country에 어떻게 캐나다 군인이 여행 갈 수 있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때는 군에 입대하기 전이었으니까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아마 캐나다 군목 허 목사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생활을 목격하고는 캐나다군에 입대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과 드립니다.

지난 주 발행인 데스크에 소개해 드린 95세 되신 조정규 여사님이 캘거리에서 최고령이 아니고 98세되신 이봉순 권사님이 최고령이심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앞으로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시리즈로 연로하신 분들을 신문에 소개드릴 계획입니다. 이봉순 권사님의 생면월일을 알려주시는 캘거리 노인회 이석철 홍보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권사님의 가족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킁킁, 코로나19 냄새!' 개의 바이러스 감지 정확도 최대 100% (연구)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물 친구인 개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알포르 국립 수의과대학 연구진은 벨지안 마리 노이즈 셰퍼드 8마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다. 연구진은 개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겨드랑이에서 채취한 냄새 샘플 360여 개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대상으로 냄새를 맡고 가려내게 했다.

실험 전 여러 차례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채취한 냄새와 익숙해지도록 한 뒤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지될 경우 제자리에 앉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훈련시켰다.

각각의 개마다 최소 15-68개의 샘플 냄새를 맡았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지의 정확도는 83-100% 달했다. 총 18마리의 개 중 4마리가 100%의 정확도를 보였고, 다른 개

들 역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에 동원된 개 중 2마리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연구진조차도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해 '건강한 사람' 쪽에 속해 있던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지해냈다. 연구진은 곧장 이 사실을 인근 병원에 알렸고, 검사 결과 해당 샘플의 주인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이번 실험에 참여한 개들은 프랑스 파리와 지중해 프랑스령 섬인 코르시카 등지에서 응급구조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부분 레바논의 개 특수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폭탄을 찾아내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암 등을 감지해내는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의 겨드랑이 냄새를 샘플로 이용한 특별한 이유도 공개됐다. 연구진은 "겨드랑이 냄새에는 신체가 가

진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특징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실험에 직접 이용할 경우 개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도미니크 그랑장 교수는 "이번 실험 과정에서 개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최소한이거나 거의 없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감별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는 사람보다 1억 배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당뇨, 일부 암 등을 감별해 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org)에 게재됐다.

한인남성, 美 뉴욕서 인종차별 피해 "지저분한 바이러스" 폭언



미국에서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주 뉴욕시 퀸스에 거주하는 한인 권씨는 베이사이드 지역의 한 편의점에 들렀다가 백인 남성에게 모욕을 당했다. 권씨는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정체불명의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손님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백인 남성은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 "지저분한 이민자들"이라며 역겨운 인종차별을 반복했다. 분에 못이긴 권씨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자 성큼성큼 다가온 백인 남성은 폭언을 퍼붓고 권씨를 위협했다. 물건과 음식을 흩뿌려 매장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권씨의 촬영 사실을 알아챈 뒤에는 더욱 거세게 폭력을 휘둘렀다. 권씨를 거칠게 잡아 밀친 후 바닥으로 내던졌고, '국'이라 조롱했다. '국'(Gook)은 동남아시아인을 싸잡아 지칭하는 인종차별적 속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북한군과 중공군을 낮잡아 부를 때 쓰였으며, 근래에는 주로 한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한국의 '국'과 발음이 비슷한 탓이다.

정체불명 백인남성에게 봉변을 당한 권씨는 매장 직원과 함께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을 '괴롭힘'(Harassment) 사건으로 접수만 해놓은 상태다. NYPD는 신고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권씨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똑같이 체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다. 감옥보다는 방안에서 화내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제대로 주목을 받아 사법기관이 증오범죄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백인남성을 기소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해당 사건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어떤 이는 당시 백인남성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제보했으며, 다른 이는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다고 거듭했다. 또 지역 언론과 경찰, '아메리칸액션포럼(AAF) 등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양권에서는 동양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퍼시픽정책기획위원회(A3PCON)와 긍정행동을 위한 중국인(CAA) 데이터를 종합하면 5월 17일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171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한국계 피해는 17%에 달한다.

지난 3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한인 여학생이 "바이러스"라는 모욕과 함께 폭행을 당해 뉴욕주지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한인 유학생이 백인 남학생에게 총기 위협을 당해 논란이 일었다.